

“학교 무상급식·수학여행비 연 800억 중복 계상”

광주시의회, 광주교육청 결산승인 심사서 지적

“18건은 사업계획과 달리 예산 임의 집행”

광주지역 각급 학교가 무상급식과 수학여행비로 연간 800억원을 중복 계상해 지방재정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광주시교육청이 예산심의 때 제출한 사업계획과 달리 멋대로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 유정심(국민·남구2) 위원장은 지난 3일 열린 시교육청 결산승인 심사에서 “각급 학교 회계 결산 분석 결과 무상급식과 수학여행비로 연간 800억원이 중복 계상돼 있어 재정의 운영 내용과 재무상태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결산 개요를 작성해야 하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 교육청이 제출한 각급 학교 회계결산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상급식의 경우 ‘학교운영비 전입금’과 ‘급식비 지원’으로, 수학여행비는 ‘학교운영비 전입금’과 ‘현장체험학습 지원 중 수학여행비’로 각각 중복 편성하고 있다.

유 의원은 “수익자부담경비인 급식비 지원은 수익자인 학부모가 납입하지 않고 있으나 납입하고 있는 양 예·결산서를 작성하는 것은 허위공문서 작성”이라고 주장했다.

또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해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학교운영위에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에 근거해 매년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에 중복 계상된 즉, 허위결산서를 제출해 심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 관계자는 “이중 계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는 교육부의 지원금 업무처리 절차 지침에 따른 것으로 전국 모든 교육청이 같은 사정”이라며 “지자체가 얼마나 부담하는지, 1인당 학생들에게 얼마나 부담하는지 추출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업계획과 달리 멋대로 예산집행이 되는 부분도 지적됐다.

광주시의회 김옥자(국민·광산3) 의원은 “2015 회계연도 결산심의 결과 시 교육청이 산출기초를 무시해 시의회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했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따라서 예산편성 시 제출한 사업계획과 집행내용이 다른 사례만 모두 18건에 달했다.”

학교 교육력 제고 중점학교 운영비는 예산 편성 때 63개 학교에 1500만원씩 모두 9억4500만원을 집행하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500만~2500만원이 차등 지급됐다.

예산혁신 학교운영비 지원사업에서는 10개 학교를 선정하려했지만 유치원, 사립중, 공립고의 지원이 없자 공립초·중학교를 임의로 지정해 집행했다. 진로활동실 구축지원비도 지원 대상이 집행 단계에서 바뀌었다.

김 의원은 “매년 같은 지적을 받고, 작년에도 장회국 교육감이 사과까지 하면서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며 “예산편성을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결산심사만 잘 넘어가면 문제없을 것이라는 동일한 생각 때문 아니냐”고 질타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세계 백신 전문가 화순에 모인다

10~11일 국제백신포럼 열려

노벨상 칭커나겔 교수 등 참여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인 스위스 룰프 칭커나겔 교수가 백신산업의 메카로 성장하고 있는 화순을 찾는다. 오스트레일리아국립대학박사인 그는 신체조직의 면역체계 인식과 파괴 매커니즘을 발견해 1996년 노벨상을 받았다.

전남도는 5일 “대한민국 최초로 백신 분야 연구자, 기업인, 정부, 국제기구가 한자리에 모이는 ‘2016 화순국제백신포럼’이 오는 10일부터 이틀간 화순 하니움센터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전남도와 화순군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질병관리본부·(주)녹십자가 후원하는 이번 포럼은 ‘질병 퇴치와 백신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다.

포럼에는 룰프 칭커나겔 교수를 비롯해 국내외 백신산업 관계자 10여 명이 연사로 참여한다.

그동안 국내에서 학회가 주관하는 백신포럼은 수차례 있었으나 연구, 개발, 산업, 정책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백신에 대해 균형 있게 토론 포럼은 이번이 처음이다. 첫날 기조연설자로 나선 칭커나

겔 교수는 ‘에볼라나 메르스 백신 개발은 쉬운데, 에이즈나 결핵백신은 왜 불가능할까?’를 주제로 발표한다.

세 가지 세션으로 진행될 본 행사에서는 ‘백신과학기술의 최신 동향’, ‘백신정책과 국제공동체’ 등에 대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문제 제기와 해결 방안이 논의된다.

2일차인 11일에는 ‘한국과 세계 백신 산업에 대한 전망’을 주제로 초청연사, 언론인 등이 참여하는 라운드테이블 토론회가 열린다. 전남도와 화순군은 독일 프라운호퍼 IZI연구소, 화순전남대병원, (주)셀트리온, (주)제넥신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화순백신포럼 활성화를 위해 백신 연구·개발과 관련해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화순국제백신포럼은 화순을 세계적 백신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연호 전남도 창조산업과장은 “화순국제백신포럼은 전 세계 백신 관련 전문가, 국내 백신산업 종사자 및 백신 연구자들이 백신의 미래에 대해 공부하고 국내외 백신산업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원일기자 chadol@kwangju.co.kr



한미일 국방장관회담 규탄 ‘광주·전남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5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 결과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사드 한국 배치를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최원일기자 choi@kwangju.co.kr

中 쑨젠궈 인민군 부참모장 “사드 한국 배치 반대”

“북핵, 협상 테이블로 다시 돌려 놓으려 노력할 것”

중국 인민해방군 쑨젠궈(孫建國·상장) 부참모장은 5일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주한미군 배치계획에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제함했다.

쑨 부참모장은 이날 싱가포르 상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의 주제연설을 통해 “사드 배치는 지역의 안정을 잠식할 것”이라며 “미국이 사드 시스템을 한국

에 배치하려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따로 질문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사드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잘 안다”면서 “사드의 한반도 전개는 그들이 필요한 방어 능력을 훨씬 능가하는, 필요 이상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쑨 부참모장은 전남 한민구 국방장관과

의 회담에서도 사드가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한 장관은 “중국이 사드를 너무 과대평가해서 본다”며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방어용 무기”라고 대응했다.

쑨 부참모장은 북핵 문제에 대해선 “능동적으로 협상 테이블로 다시 돌려놓으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해, 대화보

다는 제재에 집중할 때라는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시각과 차이를 보였다.

그는 중국의 북한 실득 노력을 묻는 질문에 “하나하나 말하진 않겠지만, 중국은 많은 노력을 했다”면서 “중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쑨 부참모장은 미국을 비롯해 필리핀·베트남 등과 갈등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도 연설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해 중국의 입장을 피력했다. 쑨 부참모장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미국의 비난을 ‘도발’이라고 반박하며 이 문제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연남뉴스

광주시-말레이시아 플라카주 환경문제 공동대처

광주시와 2017년 UEA(도시환경협약) 정상회의 개최지인 말레이시아 플라카주(州)가 환경문제에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 운장현 광주시장은 3일 광주시청 접견실에서 플라카 방문단을 접견하고 상호 관심사를 논의했다.

운 시장은 “환경에 대한 선진적 사고를 갖고 UEA 회의를 유치한 데 감사다”며 “광주는 UEA 의장국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성공적인 개최를 돕겠다”고 말했다.

플라카 주 교육과학 녹색기술 혁신의 회 다락 위라 하지 유노스 빈 후신 의장은 “두 도시가 환경문제에 관해 늘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 마련을 위해 협력해가자”고 화답했다.

지난 1일 광주를 찾은 이들 일행은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을 둘러보고, 2017 UEA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업무협약, 하수처리장·위생매립장·음식물 자원화시설 견학 등 일정을 소화한 뒤 4일 출국한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전남 모내기 74% ... 봄철 영농 순조

저수율 72% 평년보다 높아

5일 현재 전남지역 모내기 마무리 면적은 12만3000여ha로, 계획 면적 16만7000ha 대비 74%가 완료됐다. 보리 수확도 1만2000ha로 전체(1만9397ha)의 62%. 양파 수확은 전체(9521ha)의 60%가 완료돼 오는 25일을 전후해 봄철 영농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특히 올 봄(4~5월) 평균 기온이 섭씨 17.5도로 전년보다 0.9도, 평년보다 1.8도가 높고, 올 추석(9월 15일)이 전년보다 빨라 모내기가 예년에 비해 1주일 이상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전남도는 적기 모내기를 위

해 도내 저수지 3207개소와 양배수장 977개소 등을 사전 점검해 영농기 급수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왔다.

지난 1일 현재 전남지역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도 평년보다 2%가 높은 72%로 모내기 등 영농 급수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농번기 부족한 일손을 달기 위해 오는 6월 20일 한달간 ‘농촌 일손 증원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교령농가 등 일손이 취약한 농가 위주로 집중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공무원 3000여 명 등 총 3800여 명이 참여해 양파·마늘 수확과 과일 수거, 매실 따기 등 70ha의 농작업을 지원했다.

최원일기자 chadol@kwangju.co.kr

YHB 이동식 에어컨

조리작업장/주방/산업현장 작업효율 증대!!
체감온도를 낮춰 최적의 작업환경 보장!!





▶ 쾌적하고 깨끗한 작업공간 연출

▶ 실내·외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

▶ 이동이 용이한 바퀴 형태

▶ 고온 및 습기에 강력

추천

대한민국 우수중소기업
대통령 표창 수상기념
특별가 공급

전국 50개 지점망 이용
24시간 내 A/S

설치 장소: 조리작업장, 주방, 여름캠핑장, 골프연습장, 창고작업장, 산업현장, 용접장, 열처리장, 정비소, 고온작업장, 유리작업장, 기계실, 전산서버룸

필터 교체가 필요없는 집진기

YHB (주)YHB ECO / 주식회사 YHB / (주)YHB 토달서비스

본사 및 영업본부: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 12차 501호 ☎ 02-2029-6400 / FAX 02-2029-6404
 광주 공장: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7번로 74(오선동) ☎ 062-952-6633 **익산공장** 전북 익산시 석암로1길 41(용제동) ☎ 063-835-4771
 www.yhbeco.com / www.yhb.co.kr E-mail : shh@yhb.co.kr / eco6400@hanmail.net